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순수한 행복을 찾기 위하여....

(어디서 보았던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글이지만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저는 어느 유명한 사람보다도 소박하고
맑은 심성을 지닌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서투른 문체라도 좋고
간혹 맞춤법이 틀려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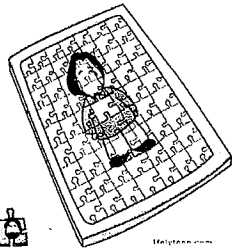
창가에 아름다운 햇살이 비친다든가,
귀뚜라미 소리에 달빛이 더욱 서글퍼 보인다고 하는,
뭐 꼭 용건이 아니더라도 종종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먹기 위해서 곡식을 심듯이
사람을 사귀는 동기도 그래야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꽃이나 시, 노래와 같이 끼니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은 온 종일 겨울 냄새 베인 바람이 불고
낙엽들은 서로 최종의 인사를 나누기에 바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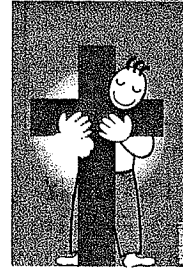
이러한 날,
저는 누군가의 벗이 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발에 곡식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발두둑에 하늘거리는 작은 풀꽃과도 같이
조용한 기쁨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어느 유명한 사람보다도 소박하고
맑은 심성을 지닌 한사람에게,
소박하고 맑은 심성을 지닌 한 사람의
벗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 내리는 저녁이거나 이슬 고운 봄날 아침에...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47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1월 23일
☎520-9464.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예수님 처럼 살고 싶습니다



일단 그분은 건강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셔도 그저 낮잠 한 번 주무시고 피로를 말끔히 씻으셨
습니다. 사십일 금식기도를 하고서도 꼬덕 없으셨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사람들은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여야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성들어 요리를 했던 것
입니다.

빵과 생선요리를 좋아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분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의를 보고도 못본척 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며 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단력도 강하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의 집에 가서서 주무시기로 작정하신 일도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의적이셨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 5:38-39).....

정말 혁명적인 교훈입니다.
새로운 의견은 언제나 도전을 받는 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창조적인 교훈
을 거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비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해 목
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를 바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
결혼은 하늘이 맺어주지만
이 땅에서
잘 가꾸어 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엎드려 책을 읽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래 있기도 어렵고
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면 그랬지▶ "얼음파는 가게"
큰 덩어리 얼음을 썰 때면 하얗게 떨어지던 얼음 가루
풍경이 여름이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에는
'어름'으로 써 붙여 아이들끼리 '어름'이나 '얼음'이나
로 제법 진지한 얘기가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새끼줄에 얼음 한 덩어리 질끈 매어 들고 가는 어느 노
인의 뒷모습이 아직도 쓸쓸한 채 남아 있는 것은 녹기
전 쟁 걸음을 걸어야했던 얼음과 재촉당하던 황혼인생
의 오버랩이었나 봅니다. 큰 얼음덩어리를 바늘로 대고
깨뜨려 화채를 만들어 먹던 여름날 추억! 이젠 '지난
어름바닷가'처럼 그리움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4 (감사절)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6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34:18-2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10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지찬영	고성일		김현수.김홍구
9	최재학	권용일	권정호.강현정	박병민.박 실
16	김교섭	김경숙	정종일.이선애	박일영.박재양
23	김순자	김경일		박태원.서동완
30	김종건	김동숙		양경배.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한국방문> *박필순 성도(17일) *강순남 집사(22일) *한정옥 집사(26일)
<장례후 귀국> 이광희 장로(18일). 정관영 집사(20일)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동안 가족,사업,건강 그리고 믿음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는 추수감사헌금등 절기헌금이 별도로 없고 매달 한번씩 드리는 "이삭줍기"헌금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다음주일이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보니 아이들은 무지개 떡, 어른들께서는 팔 시루떡을 좋아하시더군요(저는 썰지 않은 가래떡이...). 예배 후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감사를 떡을 나누며 갖겠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한 Busary 시험중입니다. 노력하며 얻은 지식이 떨리는 마음에서도 당당하게 발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연(김종원.김영경 집사).박규형(박기창,한정옥 집사).이승윤.이의현 정상현(정관영,황경임 집사).
- 남선교회 운동경기: 오늘 예배 후 은혜와진리교회와 족구시합
<장소> 은혜와진리교회(32 Edgewater Dr.Pakuranga).오후 3시(선수들은 2:30분에 모임)
- 학생부.청년부 정기 Sports Day:Tea Time후 YMCA(City).
- 찬양예술제. 29일(토) 저녁 7시. Victory Christian Church. 98Beaumont St.City
- 다음주일예배 특별찬양(예고): "갈릴리국악선교단"
*찬양예술제에 참가한 선교단이 우리교회를 방문해 국악찬양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 연변과학기술대학교.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자 김진경 총장 교민집회(예고)
*중국내 우리 조선족 젊은이들을 위해, 통일을 바라 본 북한동포를 위해 연변과 평양에 믿음하나 의지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재미동포 김진경 총장의 믿음의 이야기...<일시> 12월5일(금)저녁7시. <장소>본당
- 주님의교회 창립8주년기념 성가대발표회(오늘 저녁 7시)에 초대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착한 시인들▶ 호 수
-정 지 용-
얼굴 하나 아
손바닥 둘 로
꼭 가리지 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 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부친의 장례를 지내고 오신 교우의 심방.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들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물가에 선 아들. 타국에 사는 이유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젠 보고 싶다해도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기에 마음에 칼금을 긋는 슬픔의 눈물만이 그 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보고싶을 땐 눈 감아야만 보이는 그리움의 크기, 호수보다 더 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